

##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중산층 신화의 허구와 진실

김기현\*

단독/선문대학교

**Kim, Ki-Hyun (2014)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Jews in Argentina: The Illusion and Truth of the Myth of Middle Class"**

### ABSTRACT

Notwithstanding their economic rise, the Jews in Argentina were seen as a repressed middle class until the 1980s. Today the myth of the middle class is partly true and partly illusio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Argentine Jews underwent many changes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New data on income leve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was presented in the early 2000s, enable us to develop a different point of view about economic statu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status of the Jews in Argentina and to offer a new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I analyze the demographic factors of Argentine Jews and the process in which Jews occupied an intermediate space in the economy from the early years of immigration to the 1980s. This makes it possible to define the new socioeconomic status of Argentine Jews according to the changing condition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come level and influence in certain industries such as finance.

**Key Words:** Argentina, Jews, socioeconomic status, middle class, occupation

### 서론

1980년대의 대표적인 라틴아메리카 유대인 연구자들은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다(Elkin 1980; Segal 1987). 물론 이들도 모든 유대인들이 중산층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이 직업, 교육수준, 소득 수준 등으로 볼 때 대부분 중산층에

---

\* Ki-Hyun Kim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Sunmoon University, Korea (Email: drkhkim@sunmoon.ac.kr).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계급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상당 부분의 유대인들이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지만 유대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와 상류층의 사회적 배타성으로 인해 중산층으로서의 소득 수준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지위는 낮다고 지적한다. 엘킨은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 사이의 이러한 분리는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비록 직업이나 삶의 형태에서는 중산층이지만 계급으로서 그들은 사회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Elkin 1980, 227).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최근 개정 출판된 그녀의 저서 『라틴아메리카의 유대인들』(*The Jews of Latin America*) (Elkin 2011)에서도 크게 수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분석들이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신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반유대주의의 일반적 믿음인 ‘유대인들은 모두 부자’라는 기존의 신화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와 사회적 배제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류층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중산층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냈다.

오늘날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현실은 1980년대 유대인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또 다르다. 물론 다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도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사회의 최상류층에 속하는 유대인의 비중은 다른 아르헨티나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높고, 기업 부문에서도 금융업 등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문화계에서도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1980년대부터는 정치적 참여도 확대되어 정부 고위직이나 특정 정당의 핵심그룹에까지 오른 유대인들이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에서 반유대주의가 여전하고 유대인들이 배제되는 곳이 아직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을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된 중산층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보다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신화들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된 중산층으로서

의 유대인 신화에 대한 허구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목적이다. 유대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한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따라서 역사적 상황의 전개에 따라 변화하는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과제이다.

그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의 존재를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이민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그들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중산층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정치적 참여, 소득 수준, 산업에서의 영향력 등을 통해 재규정해 볼 것이다.

##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수

### 누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대인의 수는 크게 달라진다.<sup>1</sup> 유대인을 정의하는 네 가지 기본적 요인은 혈통, 종교적 율법의 실천, 자기규정, 가족관계이다. 데야페르콜라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유대인을 정의하는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한다. 첫째는 ‘핵심적(nuclear) 유대인’ 그룹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 규정하고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소수는 유대인 부모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문화적 관습을 실천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두 번째 그룹은 ‘확대된(extendida) 유대인’ 그룹으로서 이 그룹에는 비록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문화적 관습을 실천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도 유대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마지막

1 누가 유대인인가? 하는 문제는 시오니즘에 따라 유대인 이민자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그에 따라 1950년 제정된 이스라엘의 귀환법은 유대인의 정의를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했으며 다른 종교를 신봉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리고 있다(Johnson 2005, 261). 하지만 1970년 수정된 귀환법은 유대인의 범위를 보다 확장해 부모나 조부모 중 누구 하나라도 유대인이면 비록 유대교를 믿지 않아도 그를 포함한 그의 배우자까지 이민 자격을 부여했다([http://en.wikipedia.org/wiki/Law\\_of\\_Return](http://en.wikipedia.org/wiki/Law_of_Return)). 즉 1950년의 귀환법은 유대인의 정의를 ‘핵심적 유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1970년 수정 귀환법은 ‘광범위한 유대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은 ‘광범위한(ampliada) 의미의 유대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여기에는 비록 유대인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결혼이나 입양 등을 통해 유대인 가족에 속하게 된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대인과 결혼한 비유대인 배우자는 광범위한 범위의 유대인 그룹에 속하는 것이다(DellaPergola 2011, 327-329).

2004년 즈멜니스키와 에르데이에 의해 조사된 부에노스아이레스 메트로폴리탄 지역(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주변의 위성도시를 합한 지역, Area Metropolitana de Buenos Aires: 이하 AMBA) 유대인 수를 데야페르골라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핵심적 유대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163,000명, 확대된 유대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244,000명으로 나타났다.<sup>2</sup> 그에 따르면 확대된 유대인 그룹 중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따라서 핵심적 그룹에 속하는 사람의 비중은 67%를 차지한다.<sup>3</sup> 이는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33%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대된 유대인 그룹에 속하는 244,000명 중 부모 모두 유대인인 경우(전체의 52%)에는 그중 94%가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는 핵심적 유대인인 것에 비해, 어머니만 유대인 경우(15%)에는 핵심적 유대인의 비중이 33%, 할머니가 유대인인 경우(17%)에는 29%, 아버지만 유대인인 경우(10%)에는 39%, 할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12%)에서는 17%로서 부모 중 한쪽만 유대인인 경우 유대인 정체성을 표시하는 핵심적 유대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Jmelnizky and Erdei 2005, 44-46).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유대인인 경우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40% 이하로서, 다시 말해 이 경우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6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요시함으로써<sup>4</sup>

2 광범위한 유대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312,000명으로 추정된다(DellaPergola 2011, 328).

3 젊은 층일수록 이러한 비율은 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55세 이상의 경우 80% 이상이 핵심적 그룹에 속하는 반면, 35세 미만의 경우 핵심적 그룹에 속하는 사람의 비중은 60% 이하로 나타난다(Erdei 2011, 345).

4 아르헨티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중복 응답 가능) 혈통을 꼽은 사람이 88%로 가장 많았고, 문화적 동질성을 꼽은 사람이 7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종교와 국적을 꼽은 사람은

비록 유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유대인 혈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적 유대감이 작지 않다.<sup>5</sup> 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가 존재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한 유대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된 그룹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비록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만약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아르헨티나 유대인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유대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대된 유대인 그룹까지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유대인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로서 앞서 언급한 즈멜니스키와 에르데이의 보고서(Jmelnizky and Erdei 2005)도 확대된 유대인 그룹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도 유대인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확대된 그룹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비중

미국 유대인 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AJC)가 매년 발간하는 ‘아메리카 유대인 연감’(American Jewish Year Book)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현재 아르헨티나의 핵심적 유대인의 수는<sup>6</sup> 181,000명으로 전체 인구 40,500,000명의 0.45%를 차지한다(광범위한 유대인의 수는 300,000명으로 0.74%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많은 수이며(비중으로 계산하면 우루과이 핵심 유대인의 비중이 0.51%임으로 아르헨티나의 0.45%보다 좀 더 크다),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러시아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많다(DellaPergola 2012, 23, 59).

한편 2005년 아르헨티나 AMBA지역 유대인의 인구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

각각 55%, 4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문화적 관습으로는(중복 응답 가능) 할례가 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년식(Bar Mitzva: 바르 미츠바로 불리며 율법의 아들이 되었음을 의미함)이 60%, 결혼식이 59%, 장례식이 66%를 차지했다(Erdei 2011, 351-358).

5 이는 똑같이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가 비록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없는 한국인 혈통의 해외 거주 2세, 3세들을 한인동포의 범주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6 AJC는 유대인의 수를 핵심적 유대인과 광범위한 유대인 두 범주로만 나누어 발표한다. 확대된 유대인 수는 발표하지 않는다.

즈멜니스키와 에르데이는 아르헨티나 전체 유대인 인구의 약 80-85%가 정도가 AMBA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Jmelnizky and Erdei 2005, 21). 따라서 이 지역에서 유대인의 비중은 전체 유대인 비중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확대된 유대인그룹에 속하는 유대인의 수는 156,000명으로 이 지역 전체 인구 2,776,138명의 6%를 차지한다. 그란 부에노스아이레스(Gran Buenos Aires)<sup>7</sup>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는 88,000명으로 이 지역 전체 인구 8,684,437명 중 1%이다. 이 두 곳을 합한 AMBA 전체에서 확대된 그룹에 속하는 유대인 인구의 비중은 이 지역 전체 11,460,572명 중 244,000명으로 2.13%이다(Jmelnizky and Erdei 2005, 38).

표 1. 아르헨티나 핵심적 유대인 수 변화

년도	1960	1970	1984	1995	2005	2012
인구(명)	310,000	282,000	228,000	206,000	185,000	181,800

자료: AJC, various years

한편 아르헨티나 유대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의 핵심적 유대인 수는 1960년 310,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181,800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적 유대인 수의 감소는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유대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오니즘의 영향 때문이지만, 그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군사정부의 억압과 경제위기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재이주를 시작한 것은 페론이 물러나면서 반유대주의가 폭발하고 동시에 군사정부의 억압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이다. 3차 페론 정부(1973-1976) 때 잠시 주춤했던 유대인의 역이민은 1978년 군사정부의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이 시작되면서 인권유

7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주변의 수도권 도시들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속하는 24개의 위성도시 파르티도(partido: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들을 말한다.

린과 반 유대 폭력이 심해지자 다시 증가했다.<sup>8</sup> 한편 2000년대 초반의 극심한 경제위기 또한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의 대량적 해외 이주의 계기가 되었다.

##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제적 부상과 중산층 지위 획득

### 직업구조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에 이주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농촌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를 선택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은 않았다. 1895년에서 1930년대까지 유대인들이 공직이나 군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행상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이 시기에는 도시에서도 사회적 신분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 시기에 80-90%의 유대인들은 도시에서 숙련된 노동자, 하위 자영업(행상, 이발사, 전당포업자 등), 중위 자영업(보험 중개인, 가내공업, 수입품 판매업 등) 이 세 범주에 종사했다.<sup>9</sup> 그나마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도 사회적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그룹의 60%가 죽을 때까지 최초의 직업을 유지했으며, 자영업자의 27-56%(조사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남)가 평생 같은 수준의 직업에 종사했다

8 가디언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전쟁’ 동안 군사정부의 억압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의 비중은 전체 희생자의 12%를 차지했다(*The Guardian*, 1999.03.24).

9 이 시기에 모험적이고 개척 정신이 강한 유대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진출했는데 그중 매춘업이 대표적이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국제적 매춘업은 고도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연락망을 요구하는 범죄로서 유대인들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였다 (Johnson 2005, 107).

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즈위 미그달(Zwi Migdal)이다. 초기에 ‘바르샤바 유대인 상호부조협회’로 불렸던 이 조직은 1928년 폴란드의 공식 향의로 이름을 조직 설립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따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1860년대에 설립되어, 192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고, 군부정권이 들어서 1931년에 조직이 붕괴되었다. 20세기 초 이민노동자로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에서 여성의 절대적 부족을 이용해 사업을 성공시킨 이 조직은 한 때 약 4,000명에 달하는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 매춘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를 넘어 브라질로도 진출했는데 이들 매춘녀의 국적이 대부분 폴란드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브라질에서는 ‘폴란드여자’(polacas)가 매춘녀라는 의미를 사용되기도 한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매춘업에의 종사는 아르헨티나에서 반유대주의를 자극하기도 했지만, 한편 매춘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은 극장의 주인이 되는 등 대중문화사업으로 진출하기도 했다(Feierstein 2006, 267-303).

(Elkin 1980, 215-217).

그나마 상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다른 부문 종사자들의 직업상 변화는 1930년대까지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페론 정부의 도래와 함께 수입대체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에게도 미국 유대인과 같은 경제적 부상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다.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소규모 상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했다. 이민 오기 전 유럽에서 배운 섬유업 분야의 기술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을 통해 배운 판매 기술은 제조업에서의 성공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다. 게다가 제조업은 새로 출현하는 부문이라 기존 아르헨티나 사회로부터 경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분야가 아닐 수 없었다.

돈보다는 권력, 권력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마치 귀족처럼 행동하는 아르헨티나 지주 엘리트들과 달리 유대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사업상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었으며,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지주들의 후원자적 보호 하에 낙후된 농촌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농촌의 하층 농민들과 달리 도시로 나와 시장이라는 보다 경쟁적 시스템에 기꺼이 뛰어들고자 했다. 농업이 지배적인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소규모 제조업은 국제 경쟁에 취약한 약점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존 지배층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보다 컸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분야는 사회적 신분 상승을 갈망하는 이민자들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다(Segal 1987, 203).

쉬르킨(Syrquin 1985)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유대인들의 경제적 구조를 분석한 한 논문을 통해 유대인들의 경제적 부상의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직업 선택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대인의 경제적 부상이 그들이 농업이나 제조업 노동자와 같은 전통적 직업보다 상업이나 금융업과 같은 보다 진취적 직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표 2는 그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표 2는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직업구조가 전체 인구의 그것과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다. 대토지소유

10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 반 유대주의자였던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부정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과 공장에서 땀 흘리는 일은 다른 민족에게 맡겨두고 유대인은 이들이 거둔 결실만 취한다. 이것이 이른바 유대인의 기생적 천재성이다”(Wall Street Journal, January 26, 1926).



제로 인해 자작농이 발전할 수 없는 아르헨티나 농촌의 토지소유구조 하에서 이민자가 자작농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비 1차 산업 종사자는 97.7%이다. 이는 다시 말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2.3%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AMBA 지역이 아닌 지방의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sup>11</sup> 반면 전체 인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18% 수준에 달한다.

표 2. 아르헨티나 유대인과 전체 인구의 직업 분포(1960, %)

		전체 인구		유대인	
		전국	AMBA	전국	지방
<b>비 1차 산업 종사자</b>		<b>82.2</b>	<b>98.3</b>	<b>97.7</b>	<b>90.6</b>
공업		38.9	49.5	31.8	17.3
	제조업	30.5	40.1	29.9	15.5
	건축업	1.3	1.7	1.6	1.5
	공익사업	7.1	7.7	0.3	0.3
운송업		8.6	9.3	1.7	2.3
상업 및 금융업		15.1	12.9	40.1	52.7
	상업	-	-	39.1	50.9
	금융업	-	-	1.0	1.8
서비스업		37.3	28.2	26.3	27.7
	공직 및 전문직	-	-	12.0	15.4
	자영업 등	-	-	14.3	12.3

자료: Syrquin 1985, 118, 재인용

농업 외의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은 특히 상업과 금융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부문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40.1%로서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 15.1%와 크게 대조된다. 유대인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상업 및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52.7%에 달한다. 반면 전체 인구 중 98.3%가 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AMBA 지역에서도 상업과

11 농업이 발전한 아르헨티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그나마 높은 편이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의 비중은 12.9%에 불과하다. 대신 AMBA 지역 전체 인구의 40.1%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제조업 부문의 직업 구조를 보더라도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기본적인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상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전한 경우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19세기 유럽에서와는 달리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를 차렸다. 혼자서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힘들 경우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유대인들과 조합이나 그룹을 만들어 독립을 시도했다.

표 3. 아르헨티나 제조업 분야의 직업 구조

제조업분야	전체인구(1963)	유대인(1960)
식음료	17.9	3.8
섬유	8.2	<b>19.5</b>
의류	5.0	<b>25.8</b>
목재가구	5.5	<b>8.4</b>
인쇄	3.6	3.0
화학제품	4.6	4.6
가죽제품	3.6	<b>7.7</b>
석재, 유리 등	5.1	1.0
금속	8.9	<b>12.5</b>
자동차와 기계류	27.0	8.2
그 외	10.6	5.5

자료: Syrquin 1985, 127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이 임금 노동자가 되기보다 자기 사업을 선호했다는 점은 전체 제조업 중에서 유대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제조업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자동차와 기계와 같은 중공업 분야보다는 섬유, 의류, 목재가구, 가죽제품, 금속(보석상 등이 여기에 포함됨) 등 경공업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음이 드러난다.<sup>12</sup>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중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금노동자인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12 경공업 중에서 기존 아르헨티나의 권력자들이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식음료업에 유대인 참여 비중은 낮다.

작은 경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경공업 분야 중에서 섬유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내 공업처럼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AMBA 전체 인구 중에서 피고용자의 비중은 79%인 것에 비해 유대인의 피고용자 비중은 46%에 불과했다. 한편 섬유업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유럽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졌거나 유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Syrquin 1985, 131-132). 스스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지만 한편으로 경제적 부상과 신분상승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한편 유대인들이 주로 경공업에 치중하게 된 것은 이 부문에 초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덜 들고,<sup>13</sup> 기존 권력 그룹과의 경쟁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지주계급들은 사실 제조업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대체산업화의 후호적 환경 하에서 기존의 권력 그룹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러한 틈새를 적절히 파고들으로써 유대인들은 제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제조업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공급과다와 수요 부족으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경공업 분야에서 한계에 직면한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브라질의 유대인처럼 중공업으로 진출하지는 못했다. 군부의 견제, 경공업과 달리 중공업 분야 기술력에 있어서 비교우위 부족, 브라질과 달리 아르헨티나 중공업 발전 전망이 높지 않은 점 등이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이 중공업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였다. 경공업의 성장 한계, 중공업 진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신 상업이나 금융, 서비스업과 전문직 등에서의 활동 비중은 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금융업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제적 부상에 또 다른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뛰어든 목적은 그들의 역사적 유산과도 관련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대인 기업인들에게

13 섬유업은 다른 경공업에 비해 초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주 전 유럽에서 획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자본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아르헨티나 섬유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제한된 신용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은행과 더불어 수 백 개의 유대인 신용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이민자 상인과 기업인들에게도 필요한 신용을 제공해 주었다. 나아가 교육이나 정치활동 등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신용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Syrquin 1985, 129).

특히 페론 이후 제정된 1957년 은행법이 대규모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그 갭을 파고들어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집중함으로써 급성장할 수 있었다. 1961년에 263개(이들 중 140개가 유대인 소유였다)이던 신용협동조합은 1966년 963개로까지 증가했다(Syrquin 1985, 129-130). 그 후 군사정부에 의해 신용협동조합은 성장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러한 소규모 금융기구가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신용협동조합은 유대인들의 제조업이나 상업에 있어서 경제적 부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금융업에서의 성장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들은 한 직종에 머물지 않고 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함으로써 경제적 부상과 사회적 신분상승을 이루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방송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방송 사업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였기 때문이다. 이는 유대인들이 기존 사회 지배 계층의 전통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은 아르헨티나 농촌의 전통적 토지 소유구조에서 배제됨으로써 도시로 이주해야 했고, 도시에서는 기존의 지배층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업과 제조업 영역에 진출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전통에서 자유로운 유대인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런 경제적 부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 교육

유대인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경제적 부상과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종족에 비해 교육을 중요시 했으며, 따라서 교육은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의 사회적 신분상승의 핵심적 기반이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출판된 한 유대인 관련 저서는 유대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세 유럽의 가톨릭은 신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빠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여 대중들의 문맹을 오히려 권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13세부터 율법 읽는 것을 의무화한 유대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그 어느 종족보다 더 강조했다. 유대인에게 교육은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종교적 필수사항이었다. 유대교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가 없고 대신 유대인 스스로가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따라야 한다. 랍비는 단지 더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단지 율법의 해석에 도움을 줄뿐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그 자체가 종교이고, 배움이 곧 신앙이다. 율법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야말로 유대인 성공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Hong 2013, 127-129).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통해 지위가 낮은 직업에서 전문직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교육을 통한 전문직으로의 전환 과정은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51년 아르헨티나 6개 공동체에서 조사된 유대인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직업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변화는 두드러진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부모 세대의 직업은 상인이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 50%를 넘고, 다음으로 수공업자가 모든 지역에서 거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자식 세대에 가면 상인의 비중은 20% 대, 수공업자의 비중은 5%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부모세대에서 많게는 25%, 적게는 5% 전후였던 행상인의 비중도 자식세대에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전문직의 비중은 부모세대에는 10% 전후 수준이던 것이 자식세대에는 라누스 공동체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공동체에서 25%를 넘어섰다. 산후안처럼 많은 곳은 35%에까지 이르렀다. 회사원의 비중도 부모세대에는 대부분 5% 전후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자식세대에는 대부분 10%를 넘고, 라누스처럼 많은 곳은 22.8%에 달했다. 학생의 비중(18세 이상임으로 대학생을 말한다)도 부모 세대에는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자식 세대에는 많게는(레시스턴시아) 54.2%, 적게는 16.3%(라누스)에 이르렀다. 여기서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직과 대학생의 비중을 합하면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 자식세대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14 196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AMBA 지역 전체의 20세에서 24세 유대인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가 40%, 여자가 21%로 비슷한 수준으로

표 4. 아르헨티나 6개 유대인 공동체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의 직업 구조 변화(1951년, %)

유대인 공동체 (조사된 가족수)		멘도사 (161)	산후안 (94)	라누스 (257)	코르 도바 (868)	산타페 (392)	레스스 텐시아 (127)
부모 세대	<b>수공업자</b>	<b>11.3</b>	<b>18.0</b>	<b>12.9</b>	<b>14.7</b>	<b>15.0</b>	<b>10.2</b>
	<b>상인</b>	<b>59.5</b>	<b>57.8</b>	<b>49.0</b>	<b>53.2</b>	<b>52.4</b>	<b>76.4</b>
	행상인	6.2	10.0	25.3	3.3	6.3	-
	회사원	3.2	5.6	4.3	5.8	11.0	4.0
	전문직	15.6	7.2	5.9	15.6	10.3	6.3
	노동자	-	-	1.5	0.8	2.0	-
	그외	4.2	1.4	1.1	6.6	3.0	3.1
자식 세대 (18세 이상)	수공업자	3.2	2.1	7.9	5.3	10.4	5.7
	상인	21.1	27.6	27.8	25.6	21.3	5.8
	행상인	-	-	5.9	-	1.2	-
	회사원	12.2	10.7	22.8	14.6	16.3	2.9
	<b>전문직</b>	<b>31.6</b>	<b>35.0</b>	<b>12.9</b>	<b>28.8</b>	<b>27.6</b>	<b>28.6</b>
	노동자/농민	1.9(?)	2.1	6.4	3.1	0.7	2.8
	<b>학생</b>	<b>30.0</b>	<b>22.5</b>	<b>16.3</b>	<b>22.6</b>	<b>22.5</b>	<b>54.2</b>

자료: Elkin 1980, 218

실제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자식의 대학교육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이민자 가족에 있어서 자식들 중 위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돕거나 이어받아야 했다. 그들은 대부분 대학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대신 아래로 내려 갈수록 대학에 갈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대별로 아래일수록 대학에 다니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유대인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초등교육 이수자의 비중에서도 잘 드러난다. AMBA 지역 유대인들에 대한 196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는 54%인 것에 비해 유대인들에서는 18%에 불과했다(Syrquin 1985, 124).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직업에서도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이민자들에게도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전통적으로 배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어릴

나타났다(Elkin 1980, 222).

때부터 율법 교육을 강조해왔던 유대인들은 그러한 전통을 직업을 위한 교육에 까지 이어갔다.

유대인들의 전문직 진출 분야는 차별이 존재하는 정부 관료보다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의 정부 관료 비중이 낮은 것은 아르헨티나 상류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있기도 했지만 유대인 스스로가 불확실성 때문에 관료가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간의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유대인 전문직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직 중에서도 법, 회계,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보다는 의료, 교육, 문화 분야에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전문직 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전체 유대인 전문직 중에서 62%(의료 30%, 교육 및 문화 3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엔지니어링에 12%, 법조계에 6%, 회계 부문에 7%, 그 외 13% 수준이다(Syrquin 1985, 130).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전문직 진출이 가능했던 것은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해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즉 기술적으로 숙련된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전통적인 인종적 편견을 넘어서는 시점에, 유대인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학교를 통해 그들 자손들에게 국가 경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했다. 그럼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중산층으로서의 유대인

194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진취적 직업선택과 교육을 통한 전문직 진출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사회적 신분도 상승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유대인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 학자로 꼽히는 엘킨은 1980년대 유대인의 사회적 신분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중간 정도의 소득수준을 가졌고, 주거나 교육 등에 있어서도 중산층의 삶의 형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중산층으로서 유대인들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교육받은 전문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산업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Elkin 2011, 155).

물론 엘킨도 유대인들이 모두 중산층이 된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그녀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상호협의회(AMIA)와 같은 유대인 복지기관의 지원으로 유대인들의 빈곤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그녀는 유대인들이 경제적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 사회의 반유대주의와 엘리트 계층의 사회적 배타성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소득 수준에 비해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지위는 낮다는 것이다. 그녀는 1980년대까지 유대인들의 정치적 참여는 매우 낮았으며, 고위 공직에도 오를 수도 없었다고 한다. 비록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중간 수준의 직업과 중산층의 삶의 형태를 향유했다고는 하지만 계급으로서 아르헨티나 사회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괴리 현상은 라틴아메리카 어떤 나라에서보다 아르헨티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Elkin 1980, 227).

유대계는 경제적 부상에도 불구하고 상류계급 진입의 외형적 상징인 상류층 사회클럽 가입이나 전통적 엘리트 가문과의 결혼이 제한되어 있었다. 전통적 지주 엘리트 가문의 사람들은 상인과 제조업자들을 무시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지주 과두지배층과 교회 고위성직자 지위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군부의 고위직에서도 배제되었다. 심지어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고위직에도 거의 오를 수 없었다.

시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우파들은 이민자들 중에서 유대인에게만 유독 계급보다 인종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약삭빠르고, 돈만 추구하며, 가톨릭이 아닌 독특한 종교적 실천을 행하고, 유물론자들이며, 아웃사이더이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들은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과는 달리 상류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적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참여 수준은 낮았고, 사회적 신분 상승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Segal 1987, 208-214).

경제적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으로 정치적 참여도 미약하다는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억압 받는 중산층 신화는 이렇게 형성되었으며, 그러한 시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민주화 이후 유대인 경제사회적 지위의 변화

1980년대까지 아르헨티나 유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이 경제적 부상에 도 불구하고 정치적 참여 수준은 낮고, 사회적 신분도 중산층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반유대주의와 아르헨티나 상류층의 배타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의 유대인 관련 주요 저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변화하고 있다. 반유대주의와 사회적 배타성은 여전하지만 민주화 이후 유대인들의 정치적 참여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요직에도 많이 기용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소득 수준이 보다 향상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주요 기업 중에는 유대인 소유가 적지 않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유대인들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계량화된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유대인 연구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러한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비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과도한 대표성이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 또한 유대인 조직의 반발이나 반유대주의 비난 등의 우려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향상된 경제사회적 지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필자가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이 논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럼으로 이 글에서 제시되는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관한 내용들을 대부분 계량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내용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민주화 이후 유대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변화된 모습을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 정치적 참여의 확대

1980년대 민주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에서 영향력을 가졌고, 페론 정부에서는 고위 관료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민족주의자의 거점인 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유대인들은 억압의 가장 큰 희생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알폰신 대통령의 급진시민연합(UCR, 약칭해서 급진당으로 불림) 정부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핵심세력으로 떠올랐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선거에서 6명의 유대인이 하원의원에 선출되었고, 3년 후 선거에서는 하원 254석 중 11석을 유대인이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유대인이 집중되어있는 AMBA 지역을 넘어 다양한 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가 컸다(Elkin 2011, 264).

급진당 정부 아래에서 활동한 주요 유대인 정치인으로는 우선 세사르 하로스 라브스키(Cesar Jaroslavsky)를 들 수 있다. 그는 알폰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지자로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알폰신 정부 전 기간(1983-1989)에 걸쳐 의회에서 다수당인 급진당의 하원의원 리더였다. 상원에서는 아돌포 가스(Adolfo Gass)가 같은 시기에 외교위 위원장을 맡았다.

경제부문과 교육문화 부문의 장관직도 거의 유대인들이 차지했다. 주요 인물로는 교육부 장관을 지낸 아돌포 스투브린(Adolfo Stubrin),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마누엘 사도스키(Manuel Sadoski),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리오 브로데르손(Mario Brodersohn), 재정부 장관과 경제기획부 장관을 지낸 베르나르도 그린스푼(Bernardo Grinspun) 등이 있다. 그 외 문화부 차관이자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낸 마르코스 아귀누스(Marcos Aguinus), 정보발전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슈테인가르트(Robert Schteingart), 연구 및 행정개혁부 차관과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낸 오스카 오스락(Oscar Oszlak),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총장을 지낸 오스카 슈베로프(Oscar Shuberoff), 중앙은행 부행장을 지낸 레오폴드 포르트노이(Leopold Portnoy) 등도 급진당 정부의 주요 유대인 공직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급진당 정부 하에서 정부 요직에 가장 많이 등용되었다. 급진당 정부 하에서 유대인의 이러한 과도한 대표성으로 인해 급진당은 한 때 ‘급진 시나고그’(Sinagoga Radical)<sup>15</sup>라 불리기도 했다

(Joachim M. 2009).

시리아 출신의 아랍계인 메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 확산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메넴 정부 하에서도 유대인들은 정부의 주요직을 차지했다. 메넴 정부에서 장관직을 지낸 대표적 유대인으로는 1994년에서 1999년에 걸쳐 내무부 장관이었던 카를로스 코라치(Carlos Corach)를 들 수 있다. 그 외 외교부 장관을 지낸 셀소 라페르(Celso Lafer)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엘리아스 하산(Elias Jassan)도 유대인이었으며, 경제기획부 장관 모이세스 이코니코프(Moisés Ikonicoff)와 대통령 비서실장 알베르토 코한(Alberto Kohan)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메넴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이렇듯 아랍계인 메넴 정부에서도 장관급 이상을 지낸 유대인의 수는 5명이나 된다.

2002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에두아르도 두알데 정부는 경제부장관에 호르헤 레메스 레니코프(Jorge Remes Lenicov), 아르헨티나중앙은행장에 마리오 블레헤르(Mario Blejer) 등 두 명의 유대인을 경제 핵심 부처에 임명하고 위기 극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후 키르치네르 정부 하에서 장관직을 지낸 유대인으로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다니엘 필무스(Daniel Filmus) 1명을 제외하고 없지만, 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에 들어와 유대인은 다시 경제와 외교 등 핵심 분야의 장관직에 올랐다. 악셀 키실로프(Axel Kicillof)는 2013년 이후 경제공공재정부 장관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엑토르 마르코스 티메르만(Héctor Marcos Timerman)은 주미대사에 이어 2010년부터 외교부 장관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진보적 성향의 유대인들로서 유대인으로서보다 진보주의자로서 현 정부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핵심적 유대인 그룹에는 속하지 않지만 확대된 유대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자영업자, 자유주의적 전문가 집단, 소상인 중심의 아르헨티나 유대인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진보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메넴 정부의 신자유주의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사회정의와 비판적 연대의식을 상실하기

15 시나고그는 유대교 회당으로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사교, 정보교환 등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시작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고, 경쟁과 경제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아르헨티나의 전통적 지배계급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로 인해 현재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 그룹과 보수주의 그룹으로 분열되었다(Halperín 2008).

한편 최근 들어서는 선출직에서도 유대인들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2003년부터 투쿠만 주의 주지사를 지내고 있는 호세 알페로비치(José Alperovich)를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이 주로 AMBA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치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없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알페로비치는 예외적이다. 특히 그의 부인 베아트리스 로흐케스 데 알페로비치(Beatriz Rojkés de Alperovich)는 투쿠만 주의 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해외순방 중 상원의원 임시의장 자격으로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임시 대통령직에 오르기도 했다. 보수적 엘리트 사회의 반유대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아르헨티나에서 비록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 대통령직을 맡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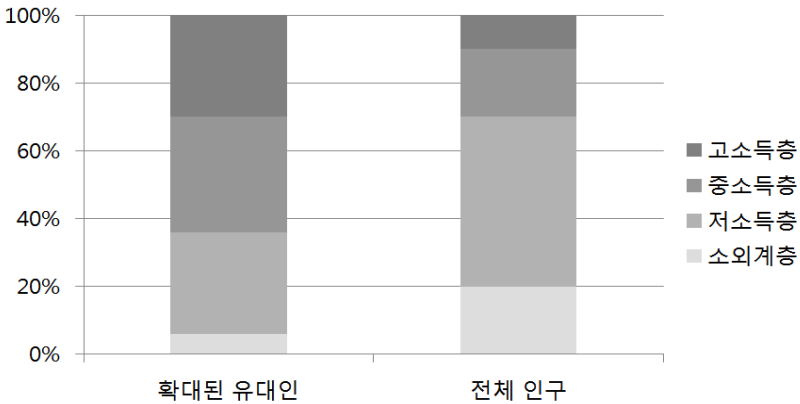
지방정치에서의 열세에 비해 AMBA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선거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서 2013년 임기 중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대표하는 3명의 상원의원 중 2명(Daniel Filmus, Samuel Cabanchik)이 유대인이었다. 호르헤 텔레르만(Jorge Telerman)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명문축구 구단 보카스 주니어스의 부회장인 카를로스 헤예르(Carlos Heller)는 2009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보수주의 성향의 랍비 세르히오 베르그만(Sergio Bergman)은 중도우파 정당 PRO(Propuesta Republicana) 소속으로 2013년에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 상원의원 72명 중 3명(4%)이 유대인이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인데 비해 3명의 상원의원 중 2명이 유대인이다. 행정부에서는 장관 17명 중 2명(12%)이 유대인이다. 심지어 유대인은 경제와 외교 등 가장 핵심 부처의 장관직을 맡고 있다. 유대인의 상당수가 급진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급진당이 아닌 페론당 정부에서도 유대인이 이 정도의 정치적 파워를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이후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참여가 제한된 중산층 그룹으로 규정될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1%도 되지 않는(정확히는 0.67%) 인구 비중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정치적 대표성을 누리고 있다.

### 경제적 지위의 다양화

유대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석인 즈멜니스키와 에르테이의 분석에 따르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2002년 당시 AMBA 지역 거주 확대된 유대인 중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30%, 중 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34%,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31%, 소외계층은 5%로 나타난다. 이는 AMBA 지역 전체 거주자들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양호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전체 거주자들은 고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에 비해 유대인들은 30%가 고소득층에 속한다. 중소득층 이상의 비율도 전체 거주자들은 30%에 불과한데 비해 유대인들은 거의 64%가 이 범주에 속한다 (Jmelnizky and Erdei 2005, 42).



자료: Jmelnizky and Erdei 2005, 41-42

그림 1. 부에노스아이레스 메트로폴리탄(AMBA)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수준 비교(2002)

고소득층은 월 소득이 2002년 기준 3,061페소 이상, 중소득층은 1,326페소 이상, 저소득층은 480페소 이상, 소외계층은 479페소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빈곤층의 기준이 743페소 이하임으로 저소득층의 약

반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보면(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AMBA 지역 유대인 중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소외계층 5%에 저소득층의 하위 반인 약 15%를 더해 약 20% 정도이다. 따라서 이 지역 거주 유대인의 소득별 계층을 분류해 보면 상류층 30%, 중산층 50%, 빈곤층 20% 정도가 된다.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거의 대부분이 AMBA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아르헨티나 전체 유대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1980년대와 같이 단순히 중산층이라고 규정되기에는 보다 다양화되었음을 말해준다. 경제 위기로 인해 신 빈곤층이 생겨났으며, 고소득층의 비중도 늘어났다. 따라서 이제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단순히 중산층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금융업과 같은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거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회사 IRSA와 농업기업 Cresud S.A.를 운영하는 에두아르도 엘스타인(Eduardo Elsztein)은 아르헨티나 최대 모기지은행인 국영 방코 이포테카리오(Banco Hipotecario)의 최대 민간인 지분 보유자이다. YPF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YPF 재국유화 이전에 지분 25%를 소유했던 에너지 기업 피터슨(Petersen) 그룹의 회장인 엔리케 에스케나지(Enrique Eskenazi)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4개의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YPF를 산 ‘키르치네르의 유대인 친구’로 알려지기도 했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 최대의 금융 그룹을 형성했던 다비드 그라이베르(David Graiver), 한때 엘스타인의 동업자였다가 조지 소로스의 자금을 운영하는 돌핀(Dolphin)사를 설립하고, 현재 아르헨티나 최대전력 회사 에데노르(Edenor)를 인수 경영하고 있는 마르코스 마르셀로 민들린(Marcos Marcelo Mindlin)도 모두 유대인이다. 웰테인(Wertheim) 가문은 아르헨티나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카하 데 아오로 이 세구로(Caja de Ahorro y Seguro)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텔레포니카(Telefónica)와 함께 아르헨티나 통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텔레콤 아르헨티나(Telecom Argentina)의 지분 55%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금융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거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민간의 돈을 사실상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최근 에너지 사업, 전력사업, 통신업 등에도 진출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유대인의 경제적 지위를 단지 중산층이라고만 규정할 수 없게 만든다.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다수는 여전히 도시 중산층이지만 그들의 경제적 지위는 1980년대 보다 훨씬 다양화되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가장 강력한 파워 그룹 중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아르헨티나의 파워 그룹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 아르헨티나에서 과도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진 파워그룹으로 유대인을 꼽은 사람은 응답자의 17%(복수응답 가능)에 달했다. 같은 질문에 외국인기업을 꼽은 사람은 66%, 국내대기업은 57%, 가톨릭교회는 45%, 언론은 43%, 은행은 35%, 정치인은 34%, 노조는 25%, 군부는 20%였다(Catterberg and Vanoli 1994, 34).

질문이 다소 부정적이고,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각 파워그룹의 영향력을 순위별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하나의 파워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비유럽계 종족 그룹인 아랍계에 대해서는 8%만이 과도한 파워와 영향력을 가졌다고 답한 것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된 중산층만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 결론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민 초기에 빈곤층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45년 이전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들의 경제적 부상과 사회적 신분 상승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상업에 종사하는 일부 유대인들만이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유대인이 미국 유대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 페론 정부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아르헨티나의 전통적 지배 계층은 상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분야를 기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에 자유로운 유대인들은 그러한 틈새를 노려 제조업에 뛰어들었고 그를 통해 경제적으로 크게 부상할 수 있었다.

산업화는 또한 전문인들을 요구했다. 전문인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와 같은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유대인들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전문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부상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유대인들은 중산층의 지위를 확보했다. 물론 그때까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으나 유대인 복지 단체들의 도움으로 이들의 존재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반면 경제적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과 정치적 참여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사회의 반유대주의와 상류층의 배타성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억압받는 중산층으로서의 유대인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일단 정치적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인 급진당에서 유대인은 거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정부의 주요 요직에 오르는 유대인들도 늘어났다.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과 같은 선출직에서도 유대인의 진출이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인구 비중이 크게 봐도 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정치적 과다 대표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준이다.

경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을 이제 더 이상 중산층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다.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비중이 30%를 넘었고, 경제위기의 여파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경제적 지위는 보다 다양화되었다. 특히 금융업과 같은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거의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듯 유대인들을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신분 상승이 제한된 중산층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민주화 이후 유대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1980년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아르헨티나 유대인의 다수는 여전히 도시 중산층이지만 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과거와 달리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 참고문헌

- AJC(various years), "World Jewish Population 1960, 1970, 1984, 1995, 2005, 2012," *American Jewish Year Book*.
- Bircz, Julio(2012), "Los judíos de hoy en la Argentina: Unas de cal y otras de arena," <http://www.piedralibre.co.il/piedralibrenew/index.php?view=article&catid=58%3Aop...>
- Catterberg, Edgardo and Nora Vanoli(1994), *Argentine Attitudes toward Jews. Working Papers on Contemporary Anti-Semitism*, New York: The American Jewish Committee.
- DellaPergola, Sergio(2011), "¿Cuántos somos hoy? Investigación y narrativa sobre población judía en América Latina," in Haim Avni, et al.(Coords.), *Pertenencia y alteridad. Judíos en/de América Latina: Cuarenta años de cambios*, Madrid: Iberoamericana, pp. 305-340.
- \_\_\_\_\_(2012), *World Jewish Population, 2012. Current Jewish Population Reports Reprinted from the American Jewish Year Book 2012*, Connecticut: Berman Institute - North American Jewish Data Bank.
- Diario Popular(2012), "Por primera vez, Argentina tiene en ejercicio una presidenta de origen judío," <http://www.diariopopular.com.ar/notas/116432-por-primeravez-argentina-tiene-ejercicio-una-presidenta-origen-judio>
- Elkin, Judith Laikin(1980), "Immigrants' Progres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Jewish Communities Today," *Jews of the Latin American Republic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 214-237.
- \_\_\_\_\_(2011), *The Jews of Latin America*,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 Erdei, Ezequiel(2011), "Demografía e identidad: A propósito del estudio de población judía en Buenos Aires," in Haim Avni, et al.(Coords.), *Pertenencia y alteridad. Judíos en/de América Latina: Cuarenta años de cambios*, Madrid: Iberoamericana, pp. 341-363.
- Feierstein, Ricardo(2006), *Historia de los judíos argentinos*, 3ra. edición, Argentina: Galerna.
- Halperín, Jorge(2008), "La nueva derecha judía: Conversación con el rabino Daniel Goldman," *Página/12*, 27 de enero.
- Herszkowich, Enrique(2003), *Historia de la comunidad judía argentina*, Buenos Aires: DAIA.
- Hong, Ik-Hee(2013), *Jewish Economic History*, Seoul: HangseongB.
- Jmelnizky, Adrián and Ezequiel Erdei(2005), *La Población Judía de Buenos Aires. Estudio sociodemográfico*, Buenos Aires: AMIA.
- Joachim, M.(2009), "Los verdaderos dueños de Argentina," [https://es.groups.yahoo.com/neo/groups/chile\\_1/conversations/messages/121158](https://es.groups.yahoo.com/neo/groups/chile_1/conversations/messages/121158)
- Johnson, Paul(2005), *A History of the Jews*, Seoul: Salim.

- Kligsberg, Bernardo(1971), "La juventud judía en la Argentina," *Nueva Sión*, Informe Especial, septiembre.
- Lewin, Boleslao(1974), *La colectividad judía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Alzamor Editores.
- Metz, Allan(1992), "Reluctant Partners: Juan Perón and the Jews of Argentina, 1946-1955," *Judaism*, September, pp. 378-394.
- Rein, Raanan(2010), "Perón fracasó en atraer el apoyo de sectores importantes de la comunidad judía argentina," <http://www.prensajudia.com/shop/imprimirnoticia.asp?notid=18218>
- Schers, David and Hadassa Singer(1977), "The Jewish Communities of Latin America: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their Development," *Jewish Social Studies*, Vol. 39, Issue 3, Summer, pp. 241-258.
- Segal, Bernard E.(1987), "Jews and the Argentine Center: A Middleman Minority," in Judith Laikin Elkin and Gilbert W. Merckx(eds.), *The Jewish Presence in Latin America*, Winchester, MA: Allen & Unwin, pp. 201-217.
- Shefler, Gil(2011), "Study Reveals Anti-Semitic Sentiment in Argentine Society," *The Jerusalem Post*, 2001/10/19.
- Syrquin, Moshe(1985), "The Economic Structure of Jews in Argentina and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Jewish Social Studies*, Vol. 47, No. 2, Spring, pp. 115-134.
- The Guardian(1999), "Jews Targeted in Argentina's Dirty War," <http://www.theguardian.com/theguardian/1999/mar/24/guardianweekly.guardianweekly1WallStreetJournal,January26,1926>.
- Weisbrot, Robert(1976), "Jews in Argentina Today," *Judaism*, September, pp. 390-401.
- Wikipedia, "Law of Return," [http://en.wikipedia.org/wiki/Law\\_of\\_Return](http://en.wikipedia.org/wiki/Law_of_Return)

Article Received: 2014. 10. 05

Revised: 2014. 11. 15

Accepted: 2014. 11. 17